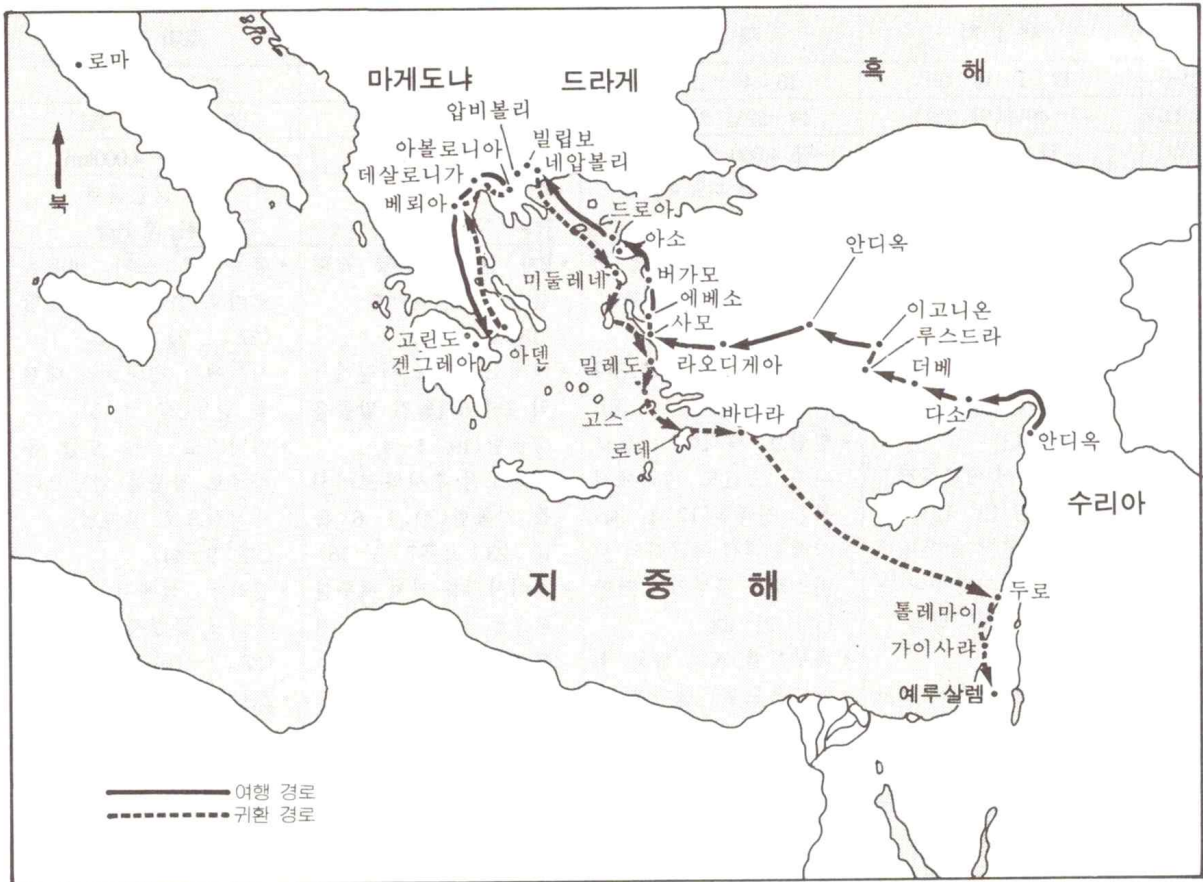


492 행 21:1-36, 유대주의자들과의 충돌로 인한 바울의 체포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인 지상대명령에 따라 진리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까지 확장되고 나아가 로마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 13:4-21:16은 3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사역을 기록하고 있으며, 18:23-21:16은 제3차 전도여행에 관한 기사이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21:1-16은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그 일행이 밀레도에서 가이사라까지 이르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제 3 차 전도 여행, A.D. 53-58년〉

21:1-16, 밀레도에서 가이사라까지의 여정

두로와 가이사라 두 여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자 강조점은 두 지역 모두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고난을 듣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로에

서는 성령에 감동받은 제자들이, 그리고 가이사라에서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결박을 예언하였다.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바울에게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는 자신의 굳은 의지를 밝힌다. 이것은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결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신이 당할 고난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였기에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다.

21:1-6, 두로에서의 여정

21장1절: 우리가 그들을(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라는 성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라는 성읍)로 가서

→ 이런 성읍, 도시들의 위치는 지도를 참고하자.

21장2-3절: 2.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페니키아 행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 구브로를(키프로스 섬을)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큰 무역항)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더라

→ 아마도 이 배는 곡물과 과일을 운반하던 무역선으로 추정된다. 당시 곡물과 과일 같은 짐을 내리고 또 다른 짐을 싣는 데 보통 일주일이 걸렸기 때문에 바울은 두로에서 일주일의 여유를 가지게 된다.

21장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두로에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올라가지) 말라 하더라(권하더라)

→ 이처럼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해를 당할 것을 알게 되었고, 단지 그 정보에 따라 성령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앞으로 큰 고난에 처하게 될 바울을 염려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권면한다. 하지만 **성령님께 매인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에서 비롯된 이들의 권면을, **성령님의 뜻과는 구분 짓고 있다. 바울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 계속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21장5-6절: 5. 이 여러 날을(7일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21:7-16, 가이사라에서의 여정

21장7-8절: 7. (일주일 만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 이튿날 떠나 (육로로 50-60km를 이동하여) 가이사라에 이르러 (사도행전 6장의 예루살렘교회)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 ‘전도자 빌립’ 빌립 집사님에 대한 참 멋진 소개이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직분을 떠나서 전도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인이려면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집사이면서 전도자인 빌립의 집에 바울 일행이 신세를 진다.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관리자에게 이사야서를 설명해준 뒤, 블레셋 성읍 아스돗 등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가이사라에 정착하여 심도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

21장9절: 그에게(그 전도자 빌립에게) 딸 넷이 있으니 (아직은)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 전도자 빌립은 딸을 넷이나 두었는데 이 딸들은 하나같이 신앙이 깊은 자들이었다. 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범적인 신앙의 본을 보여준 아버지 빌립 때문이었을 것이다. 9절에서 예언하는 자는 미래를 점치는 예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다른 어떤 은사보다 높이 평가하였던 예언의 은사, 즉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빌립의 딸들은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아 그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었다.

21장10-11절上: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성령님께서) 말씀하시되 ...

→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예언한다.

21장11절下: ...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로마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21장12절上: 우리가 ...

→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동역자들이

21장12절上: 우리가(바울의 동역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강권하니)

→ 이와같은 만류는 4절의 두로에서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욱 거세게 만류하고 있는 것이다.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되어 로마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랑하고 존경하고 염려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울면서 예루살렘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던 것이다.

21장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 후보 교안을 통해 1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자.

(행21:13, 새번역) 그 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행을 강행하려는 바울의 굳은 결심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설교를 할 때에도, 자신이 앞으로 당할 결박과 고난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곧 진리 전파의 일을 마치려 함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었다. 바울의 이러한 굳은 결심은, 예루살렘 도착을 100km 정도 남겨 둔 가이사랴에 이르러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누가가 누가복음 9:51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표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르고 있다.

21장14절: 그가(그 바울이) (성도들의)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 그쳤노라! 강조표시하자. 중요한 자세이다. 그칠 줄 알아야 한다. ‘그쳤노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시점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문제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강하게 만류하던 바울의 일행들과 가이사라의 성도들은 사명을 향한 바울의 굳은 결심 앞에 자신들의 주장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21장15-16절上: 15.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16上.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

→ 나손은 본절에만 나오는 인물이다.

21장16절下: ...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그의(나손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처럼 1-16절 단락은 밀레도에서 가이사라까지의 여정을 다룬다. 이 과정에서 고난에 대한 거듭된 예언과 만류를 뒤로하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결연한 의지가 이번 단락에 잘 나타나고 있다.

21:17-26장,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의 기사

시기적으로 이때는 A.D.58-60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A.D.58년 제3차 전도여행에서 귀환과 거의 동시에 체포되어 가이사라로 이송된 후, 가이사라 감옥에서 로마로 갈 때까지 약 2년간 구금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21:17-26장의 핵심적 줄거리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잡혀 체포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거듭된 유대인들의 고소에 맞서 유대 군중, 산헤드린, 로마 총독들, 헤롯 아그립바 2세 앞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변론하였음(=복음을 증거하였음)을 기술하는 내용이다.

21:17-26,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보고 및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나실인 결례 시행

21:17-20上,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예루살렘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함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른다. 17절 강조표시하자.

21장17-20절上: 17.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우리 일행을) 기꺼이 영접하거늘(반갑게 영접해주거늘) 18. 그 이튿날(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우리 일행과 함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장로)에게로 들어가니 (예루살렘교회의 다른) 장로들도 다(함께) 있더라 19. 바울이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에게) 문안(인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알이 말하니(3차 전도여행에 관하여 상세히 보고하니) 20上. 그들이(그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이방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

21:20下-25,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나실인 결례를 시행할 것을 권유함

21장20절下: ...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그리스도인들이라)

21장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이다.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으로 유대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야고보와 장로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 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음을 바울에게 전달해 준다. 바울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의 올바른 관계에 기초한 바울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 대한 소문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은 유대주의를 무시했던 것이지, 구약성경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었다.

21장22-23절: 22.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23.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기간을 정해서 나실인으로)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1장24절上: 그들을 데리고 함께 (나실인)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나실인 서원 제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내어(대신 내주고) (함께) 머리를 깎게 하라 ...

→ 민수기 6:13-15의 나실인 서원의 종료 절차에 따르면, 기간을 정한 나실인은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간이 차면, 7일 동안 성전에 거하면서 결례를 행하고 제8일에는 머리를 깎아야 했다.

21장24절下: ...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 이처럼 야고보와 장로들,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바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킬 방법을 의논한다. 바울 자신이 나실인의 율법을 지키고, 또한 다른 나실인들의 결례 비용까지 대신 내줌으로써, 율법에 충실하며 율법을 중히 여기는 자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었다.

21장25절: (사도행전 15:20에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 본절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입교시에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울이 나실인 서원자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대신 내는 것이 예루살렘 총회에 결의 사항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제안하는 바가 신앙적으로 문제 될 만한 것이 아니므로, 바울이 흔쾌히 자신들의 권면을 받아주고 실행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21:26, 바울이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성전에서 나실인 결례를 행함

사도행전 18:18을 보면 바울이 스스로 나실인 율법을 지키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그때는 나실인 율법에 대한 의식, 제사를 행한 것은 아니었고, 그 나실인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신약시대에 맞게 계승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성전에서 나실인 율법에 대한 의식과 제사를 행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

21장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바로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율법을 따라)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 된 것을 신고하니라

→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시한 해결책에 동의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다음 날 예루살렘성전에 들어가서 4명의 나실인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제사장에게 결례의 종료일이 언제인지를 보고하게 된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살펴봐야 할 구절이 있다.

(고전9:20)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자신의 선교 원리, 즉,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는 자신의 선교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의 제사법과 의식법은 마태복음 23:51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폐기되었다. 하지만, 당시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나아가는 일종의 과도기였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 의식법에 연연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 그들에게 그 시시비비를 굳이 가리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하기보다는, 비록 폐기되기는 하였지만 일단은 그들과 자신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의식법 그 자체가 악한 것이거나 죄를 짓는 것은 아니므로, 바울이 나실인 제사 의식을 행해 주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이전되는 과도기적 상황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디아포라 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바울이 이런 실천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문제가 악하거나 죄짓는 일이 아니었다는 부분이다.

21:27-36, 예루살렘성전에서의 유대인들의 소동에 따른 바울의 위기 및 체포

21:27-29,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모함함

21장27절: 그 (나실인 결례 기간인) 이레가 거의 차매(거의 찼을 시점에) 아시아(에베소)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유대교인들) (예루살렘)성전에서 (에베소에서 그렇게 유명하던) 바울을 (알아)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바울을) 붙들고(붙잡아놓고)

→ 바울이 3년간 밤낮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역했었던 에베소로부터 온 유대교인들이,

21장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곳을(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성전을) 더럽혔다 하니

→ 당시 예루살렘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의 바깥뜰이었다. 만약 이방인이 성전의 안뜰인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했다. 로마 당국도 유대인의 이러한 종교적 금기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어기면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부지중에라도 성전 안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쪽 경내에 이르는 계단의 발치 부분에 1.4m 높이의 돌로 된 칸막이용 벽을 만들어 쌓았는데,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헬라어와 라틴어의 경고문이 붙어있었다.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내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다가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경고문이 헬라어와 라틴어로 붙어있었다. 만일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대로 헬라인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뜰인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충분히 죽임당할 수 있었다.

21장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이방인 헬라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예루살렘)성전에(성전 안뜰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착각함)이러라

→ 에베소에서 온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성전의 안뜰에 바울과 헬라인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것은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바울과 헬라인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것만을 보고서는, 바울이 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뜰까지 들어갔을 것으로 추측성 판단을 했던 것이다. 바울을 적대시 하는 잘못된 눈으로 바라본 편견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 한 사람을 순식간에 죽을죄를 지은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21:30-31上, 큰 소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하여 무리가 바울을 죽이려 함

21장30-31절上: 30.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上. ★그들이 그를(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

→ 본절에서는 성전 안에서 붙잡힌 바울이 성전 밖에서 맞게 되었던 죽음의 위급한 고비를 서술하고 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 충돌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생각으로 바울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한다. 이때 다행히 로마 수비대가 즉각 이 소동에 대처를 해준다. 당시 로마의 수비대는 성전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성전의 북서쪽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해 있었고, 오순절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폭동을 대비하기 위해 성전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다.

21:31下-36, 로마군 천부장이 소동에 개입하여 바울을 체포하여 구인해 감

21장31절下: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 본절에 나오는 천부장은 23:26에 의하면 ‘글라우디오 루시아’ 라는 천부장이다. 당시 그의 휘하에는 6명의 백부장이 있었고, 그 백부장들 밑에는 각각 180명 정도의 군사들이 있었다. 천부장은 6명의 백부장과 그 밑에 있는 천명 이상의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군 지휘관이었다. 만약 글라우디오 루시아 라는 천부장이 곧바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바울은 그 자리에서 몰매를 맞아 스테반 집사처럼 죽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고 정확한 섭리로 천부장의 개입을 통해 바울을 구원해주신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아직 해야 할 하나님의 일, 진리 전파의 사역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가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그 신실한 사명자를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명 완수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21장32절: 그가(글라우디오 루시아 라는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21장33절上: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

→ 본절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 가이사랴에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울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할 때 쇠사슬로 묶었다. 38절을 보면 천부장은, 바울을 얼마 전에 4천 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폭동을 일으켰던 애굽인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난폭한 사람을 다룰 때 사용하는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했던 것이다.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했다는 것은 두 가닥의 쇠사슬을 한꺼번에 사용해 바울을 결박했다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군인이 각각 한 개의 쇠사슬로 바울의 양쪽에서 그의 한 손씩 잡고 그 한 손씩에 결박하였다는 의미이다.

21장33절下: ... (천부장이)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하고 조사 차원에서 물으니)

→ 그런데 천부장은 이러한 질문을 바울에게 하지 않고 군중을 향하여 질문한다. 그것은 바울을 폭행한 이유를 폭행자들로부터 듣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집단 폭행으로 너무 많이 맞아 바울이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21장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로마군이 주둔하는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가라 명(령)하니라

21장35-36절: 35. 바울이 층대에(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도록 연결된 층계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들려서 나가니) 36.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바울을) 없이하자고(없애버리자, 죽이자고) 외치며 따라 감이러라

→ 이러한 외침은 예전에 예수님을 향해 외쳐졌던 그 외침을 생각나게 한다. 유대종교지도자들에 의해 충돌된 무리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할 때에도 동일한 외침이 있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동일한 외침을 듣고 있는 것이다. 무리는 바울에게 십자가형과 같은 구체적인 사형 방법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때처럼 바울을 죽이라고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었다. 바울은 이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순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즉, 이 사건이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는 골로새서 1:24의 놀라운 신앙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이처럼 27-36절 단락은, 예베소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대항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고 이에 즉각 로마 군대가 개입하여 바울을 체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21장의 말씀을 한 주간동안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른 실천 : 사도행전 21:1-36

- 두로와 가이사랴 두 여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자 강조점은 두 지역 모두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고난을 예언**하고, 또한 **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 두로에서는 성령에 감동 받은 제자들이, 가이사랴에서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고난을 예언하고,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행을 강행하려는 자신의 굳은 결심**을 밝힌다(13절).
-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자신도 묵묵히 뒤따라가고자 굳게 결심**하였던 것이다.
- 바울이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여 성전에서 나실인의 결례(제사)를 행한 것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다.
- 에베소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모함함**으로써 **큰 소동**이 발생하게 되고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게 붙잡혀 **집단 폭행**을 당하여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게 된다.
-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고 정확한 섭리로** 천부장의 개입을 통해 **바울을 살려주신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아직 해야 할 하나님의 일, 진리 전파의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 이렇게 로마군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Claudius Lysias)가 소동에 개입하여 바울을 체포하여 구인해 가게 되고,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 **가이사랴 감옥에서 약 2년간 구금(拘禁) 생활**을 하게 된다.
- (행21:36, 새번역)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바울)를 없애 버려라!"** 하고 외쳤다.
-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동일한 외침을 듣고 있다.
- 이 사건이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골로새서 1:24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이다.